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1>

JCCT 2023-3-1

##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박순아\*\*, 신수정\*

Sun Ah Park\*\*, Su Jeong Shin \*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 및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Pearson's correlation,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학년과 전공만족이었다. 세 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Z=2.196$ ,  $p<0.05$ ). 부분매개효과 설명력은 40%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돌봄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돌봄효능감,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self-differenti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 effica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October 30 to November 30, 2022.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method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 efficacy were grade level and major satisfaction. The three variables were statically correl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ppeared to be a partial mediator ( $Z=2.196$ ,  $p<0.05$ ). The partial mediated effect explanatory power was 40%.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has prepared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are 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In the follow-up study, it would be created a program to improve the efficacy of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propose an analysis study of its effectiveness. It also proposes a study to expand the number of subjects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fficacy of care.

**Key words** : Care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정회원,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회원,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12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7일

Received: December 12, 2022 / Revised: February 24, 2023  
Accepted: March 7, 2023  
\*\*Corresponding Author: hgi96@hanmail.net  
Dept. of Nursing, Koje. Univ, Korea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에서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자 대상자의 간호실무의 핵심이며 타인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정신적, 영적 안녕의 향상을 돕고자하는 대인관계 과정이다[1]. Leininger는 돌봄을 간호대상자와 가족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감정적, 지지적, 기술적 과정이며 대상자와 가족의 치료적 인간관계로 정의했다[2]. 간호에서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봄효능감이 중요한데 돌봄효능감은 돌봄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3].

돌봄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공감 및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 대상자와 가족, 치료팀과의 협업 등 대인관계능력이 뛰어나고 간호문제 발생 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4]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는 윤리적 민감성[5], 공감역량[5,6] 대인관계 능력[6], 의사소통능력[7], 문제해결능력[7], 임상수행능력[7] 간호전문직관[8,9], 자아상태[10], 스트레스 대처능력[11] 등이 보고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아분화와의 대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자아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대인관계 능력[12], 의사소통 능력[13], 공감[14], 자기효능감[15], 스트레스 대처[12]는 돌봄효능감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자아분화는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의 개념으로 대인관계와 심리내적으로 정서와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12]. 자아분화는 장기간에 걸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정서적 자주성을 확립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15].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심리내적 측면에서 본능적 정서체계에 따라 반응하며 외부반응에 민감하며 의존적이며 불안도가 높다[16]. 그리하여 대인관계에서도 독립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사랑과 인정욕구가 강하다[12]. 즉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지 못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하여 대인관계 문제가 많고[7],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13]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대상자와 가족을 돌봄에 있어 필요한 공감능력[14], 의사소통능력[13], 대인관계능력[12,16], 스트레스 대처 능력[12], 임상수행능력[17]이 높으므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돌봄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 그리하여 자아분화가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가 낮다 하더라도 개인의 내적 자원에 따라 자아분화 정도가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아분화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에 따라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의 내적 자원 중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인간호에 대한 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18].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 및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19], 돌봄효능감[20]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과 자아분화 관련 선행연구는 없으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상관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7,12-14,16,17], 간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19,20]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는 간호전문직관이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 돌봄효능감에 대한 자아분화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며 자아분화, 돌봄효능감 두 변수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은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 두 변수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교육과정이 유사한 경남 지역 2개 대학에서 임상실습 시 대상자 돌봄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검정력 확보를 위해 G\*Power 3.1.9.7로 산출하였다. 검정력(1-β) .95 효과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α)은 .05를 기준으로 산출결과 대상자는 17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에 동의 후 자료수집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총 180명이었다. 누락된 응답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17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Je가[21]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22]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6개의 문항과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다. 하위요인은 정서인지 분화, 정서적 단절, 가족 투사, 가족 퇴행, 자아의 통합이다. Je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9이었다.

### 2) 돌봄효능감

돌봄효능감은 Coates가[23] 개발한 돌봄효능감 도구를 Jeong[2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이 높다. Coates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8이었고, Jeong의 연구에서[24] Cronbach's α값은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6이었다.

###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et al.[25]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Han et al.[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이며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 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전문성, 간호의 독자성이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 Han et al.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은 0.85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설문 조사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조사 절차 및 설문조사 중에도 연구철회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모두 익명처리되고 코드화 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연구참여시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 한 후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되었다.

##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일반적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돌봄효능감, 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자아분화, 돌봄효능감, 전문직관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27].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검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일반적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중 여학생은 142명(80.7%), 남학생은 34명(19.3%)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학년은 4학년 94명(53.4%), 3학년 82명(46.6%)이었다. 성적의 평점 평균은 3.5점 이상이 122명(63.6%)으로 3.5점 미만 64명(36.4%)보다 많았다. 임상실습만족정도는 만족이 134명(76.1%), 보통이하가 42명(23.9%)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129명(73.3%)으로 있음 47명(26.7%)보다 더 많았다. 전공만족정도는 만족이 136명(77.3%),

보통이하가 30명(22.7%)이었으며, 자원봉사기간은 한달 미만이 100명(56.8%), 한달이상인 76명(43.2%)이었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차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와( $t=-3.19, p<.01$ )와 돌봄효능감이( $t=-2.82, p<.01$ ) 높았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간호전문직관( $t=4.00, p<.01$ )과 돌봄효능감( $t=4.21, p<.01$ )이 높았다. 종교는 있음이 없음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t=2.14, p<.05$ ) 전공만족은 보통보다 만족일 경우 자아분화( $t=4.90, p<.01$ ), 간호전문직관( $t=4.01, p<.01$ ), 돌봄효능감이( $t=5.28, p<.01$ ) 모두 높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간호전문 직관	Self Differentiation	Care Efficacy
			M±SD	M±SD	M±SD
Gender	Female	142(80.7)	3.83±0.45	3.09±0.40	4.34±0.54
	Male	34(19.3)	3.82±0.47	3.03±0.34	4.27±0.49
	t(p)		0.14(0.880)	0.78(0.431)	0.73(0.461)
Grade	3학년	82(46.6)	3.78±0.50	2.98±0.38	4.22±0.55
	4학년	94(53.4)	3.87±0.41	3.17±0.38	4.44±0.49
	t(p)		-1.30(0.191)	-3.19(0.002)	-2.82(0.005)
School record	≥ 35	122(63.6)	3.80±0.46	3.09±0.37	4.30±0.53
	< 35	64(36.4)	3.88±0.45	3.06±0.42	4.40±0.53
	t(p)		-1.07(0.283)	0.44(0.659)	-1.21(0.227)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ory	134(76.1)	3.90±0.41	3.11±0.38	4.43±0.51
	≤Common	42(23.9)	3.59±0.51	2.99±0.41	4.05±0.50
	t(p)		4.00(0.000)	1.56(0.123)	4.21(0.000)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ory	136(77.3)	3.91±0.40	3.14±0.37	4.44±0.49
	≤Common	30(22.7)	3.53±0.50	2.87±0.40	3.97±0.50
	t(p)		4.90(0.000)	4.01(0.000)	5.28(0.000)
Volunteer experience	≥1 month	76(43.2)	3.85±0.49	3.13±0.40	4.32±0.52
	<1 month	100(56.8)	3.81±0.43	3.04±0.38	4.34±0.54
	t(p)		0.54(0.590)	1.45(0.147)	-0.24(0.809)

2.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정도는 4점 만점에 2.98점(±0.47)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3점(±0.46)이었다. 돌봄효능감은 6점 만점에 4.34점(±0.53)

<표 2>.

표 2. 주요 변수의 평균  
Table 2. Mean of variables (N=176)

Variable	Categories	M±SD
Self Differentiation	Cognitive Functioning vs. emotional Functioning	2.98±0.47
	self-integration	2.63±0.51
	Process Projection of Family	3.47±0.64
	Emotional Cutoff	2.89±0.66
	Degeneration of Family	2.97±0.56
	Total	3.08±0.39
Nursing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self-concept	4.27±0.55
	Social recognition	3.57±0.79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4.25±0.64
	Role of nursing practice	4.29±0.62
	Originality of nursing	4.17±1.17
	Total	3.83±0.46
Care Efficacy		4.34±0.53

3.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 $r=.4173, p<.01$ ),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 $r=.486, p<.05$ ), 간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 $r=.480, p<.01$ )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3>.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76)

Variable	Self Differenti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are Efficacy
Self Differentiation	1		
Nursing Professionalism	.173*	1	
Care Efficacy	.486**	.480**	1

\*\* :  $p<.01$ , \* :  $p<.05$

4.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7].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beta$ 값이 .403이었다( $p<.05$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값이 .50( $p<.01$ )이

었다<표 4>.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아분화와 매개변인인 간호전문직관이 종속변인인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자아분화( $\beta=.42, p<0.5$ )와 간호전문직관( $\beta=.41, p<0.5$ ) 모두가 돌봄효능감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F=57.07, p<0.5$ ).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인 Sobel test 결과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Z=2.196, p<0.05$ ).

표 4.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N=176)

Step	Model	B(SE)	$\beta$	t	F	$R^2$
1step	Self Differenti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20(.87)	.17	2.32*	5.38*	.03
	Self Differentiation → Care Efficacy	.66(.09)	.50	7.33**		
3step	Self Differentiation → Care Efficacy	.56(.08)	.42	6.93**	57.07**	.40
	Nursing Professionalism →Care Efficacy	.47(.07)	.41	6.80**		

\*\* :  $p < .01$ , \* :  $p < .05$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 정도와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정도는 4점 만점에 3.08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8] 3.05점과 유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2.77점[12] 보다는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로 연구대상을 일치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년과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았는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에서도 만족스럽고 적응적인 생활을 하며[29]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인 진로에 대한 성찰로 자아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보아[30] 전공 만족이 높은 대상자가 자아분화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보고한 Lee(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Lee(2011)의 연구에서는 이를 발달심리학적 면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경험이 많아지므로 심리적으로 성숙되어 자아분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3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3.91점[32], 3.77점[33]과 유사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과 전공에 만족할수록 높았는데 Park과 Oh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32]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에 대한 경험 부족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공만족을 저하시키며 이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성립을 저해한다고 한다[3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를 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실습 시 어려운 부분을 병원과 학교가 상호보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전공만족과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돌봄효능감은 6점 만점에 4.34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4.35점[34], 4.26점[35]과 유사하다.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에 만족할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았는데 Je와 Kim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돌봄효능감이 높았으나[36] Oh와 Park의 연구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의 돌봄효능감은 차이가 없어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성립되며[37] 간호전문직관이 명확할수록 돌봄효능감도 높아짐이 보고되고 있어[38]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은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자아분화가 돌봄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자아분화 및 간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아분화 정도는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분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능력[12,16], 스트레스대처[12], 의사소통능력[13], 진로성숙도[39], 자기효능감[15,39], 임상수행능력[17]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간호전문직관과 상관관계가 있으며[40,41,42] 돌봄효능감의 하위 문항에 해당되므로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이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아분화가 낮아도 간호전문직관이 높으면 돌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분화 향상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학부과정 교육에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자아분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특성은 학년과 전공만족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높았다.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특성은 학년과 전공만족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의 부분매개효과 설명력은 40%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돌봄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Watson, J. (1979). *Nursing: The philosophical science of car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2] M.M. Leininger, "Trans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A theory of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Vol. 6, No. 4, pp. 208-212, 1985.
- [3] M.S. Jeon, "Oncology nurses' resilienc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caring", Master's thesi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August 2015.
- [4] K.O. Park, M.S. Yi, "Nurses' Experience of Career Ladder Program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5, pp. 581-592, October 2011. <http://dx.doi.org/10.4040/jkan.2011.41.5.581>
- [5] S.A. Lee, "Mediating Effect of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Ethical Sensitiv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ing Behaviors in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a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raduate School, Korea, February 2015.
- [6] J.S. Lee, H.Y.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aring effici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2, pp. 186-196, May 2021.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2.186>
- [7] M.H. Cho, W.G. Kim, "The Effect of Caring-character,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1, pp. 329-339, October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1.329>
- [8] M. J. Je, S.Y. Kim, H.M. Choi, "The Influence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ing Efficacy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2, pp. 469-479, December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469>
- [9] J.E. Jeon, E.H. Kim, "Effects of Customer Orientation,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aring Behaviors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6, No. 3, pp. 344-351, August 2021.

-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7845510>
- [10]S.Y. Pak, "Impact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0, pp. 379-387, October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10.379>
- [11]K.E. Lee, J.Y. Hong, "Effects of Empathy, Caring efficacy and Stress Coping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1251-1270, December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4.1251>
- [12]E.J. Oh, S.A. Park, "Study on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Mobile 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2, pp. 159-184. April 2016.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187980>
- [13]MK Jeon, MS.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159-184. April 2013.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99640593>
- [14]M. Y. Jeong,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on Empathy: Moderating Effects of MBTI Preference Tendency",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 8, No. 1, pp. 139-161, April 2019, <http://dx.doi.org/10.20497/jwce.2019.8.1.139>
- [15]M.H. Bang, S.M.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Vol. 8, No. 1, pp. 1-23, February 2018.
- [16]MY. Bae, E.H.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on/Anxiety Levels in Adolesc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 No. 1, pp. 85-112, February 2009.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0550336>
- [17]SK Chung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 pp. 354-361, January 2019.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3024978>
- [18]E.J. Cho, KS. Bang,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94-101, April 2019.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3330009>
- [19]N.H. Kim, S.Y. Park. "Effect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0, pp. 215-230, October 2019.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6411773>
- [20]J.Y. Yun, I.Y. Cho, S. J. Park,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Caring Efficacy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Vol.6, No.4, pp. 718-729, April 2022. <https://doi.org/10.33097/JNCTA.2022.06.04.718>
- [21]S.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doctoral thesi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9.
- [22]M. Bowen,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vol. 4, pp. 2-90, 1976.
- [23]C.J. Coates,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Advanced Practice Nursing*, Vol. 3, No. 1, pp. 53-59, 1997.
- [24]J.O. Jeong,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doctoral thesi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August 2016.
- [25]E.J. Yeun, Y.M. Kwon,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 Korean Acad Nurs*, Vol. 35, No.6, pp. 1091-1100, October 2005.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6]S.S. Han, M.H. Kim, E.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14, No.1, pp. 73-79, May 2008.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0292306>
- [27]R.M. Baron, D.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6, pp. 1173-1182, 1986.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8]M.H. Lim,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9, pp. 225-233, September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25>
- [29]J.W. Kim, MH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 content Association*, Vol.14, No.2, pp. 506-516, February 2014

-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2.506>
- [30]S.M. Yoon,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at Ajou Suweon Kyeonggido Graduate School, 2010.
- [31]H.S. Lee, “Relation of the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0, No. 2, pp 199-207, June, 2011
- [32]H.J. Park, J.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Vol. 12, No. 12, pp. 417-426, December 201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33]S.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master’s thesis at K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February 2018.
- [34]E.J. Oh, S.A.Park, “Difference of Care Efficacy according to Myer-Briggs Type Indicat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4 pp. 53-60, July 2022.<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8210152>
- [35]E.H. Oh, S. Le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al Sensitivity on Caring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8, pp. 619-628, August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619>
- [36]M. J. Je, S.Y. Kim, H.M. Choi, “The Influence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ing Efficacy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2, pp. 469-479, December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469>
- [37]S.Y. Lim, Kim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pp. 192-206, May 2015. <http://dx.doi.org/10.17703/JCCT.2015.1.2.45>
- [38]K.O. Park, M.S. Yi, “Nurses’ Experience of Career Ladder Program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5, pp. 581-592, October 2011.<http://dx.doi.org/10.4040/jkan.2011.41.5.581>
- [39]M.H. Bang, S. M.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Vol. 8, No. 1, pp. 1-23 2018,
- [40]N. J. Je, M.R. Park,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oral Self, Moral Behavior, Self-Control,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 361-370, August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8.361>
- [41]K. E. Lee, S. I. Sun,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 37-47, February 2022,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 [42]S.Y. Kim, HO Park, “Effects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pp 101-110, May 2020. <http://www-riss-kr.libproxy.gnu.ac.kr/link?id=A106883107>